**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사업단**

**아젠다 명 : 아프리카, 안과 밖의 교차―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1. 연구 목표**

본 사업의 목적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 전문가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1) 지역연구 선도 사업, 2) 종합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3) 지역 전문가 양성 사업. 이들 사업은 유기적이고 상호 순환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및 ‘세계 수준의 아프리카 지역 연구센터’(WCCAS, World-Class Center for African Studies)로의 도약이다.

지역연구 선도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 전망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는 아프리카의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원리와 힘’을 ‘과정’(process)이란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것의 복합성과 다층성을 규명하는 작업 속에서 달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소는 아프리카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연구 선도 사업의 역점 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성과의 정리 및 통합, 2)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총체적, 통섭적 연구, 3) 서구의 연구 방법 및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아프리카 언어, 문화 중심의 독창적 연구 권역 설정, 5) 장기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한 일차자료의 확보 및 원천 지식의 창출.

종합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체계적으로 수집된 지식과 정보를 학문적, 사회적으로 소통, 확산시키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차별, 단계별로 확보하며, 국내외의 인적 자원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먼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 정보의 학문적․사회적 소통과 확산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전문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급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국가나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각종 인프라 구축 작업과 연구자 집단 및 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작업은 향후의 아프리카 지역연구에 중요한 인적․물적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전문가 양성 사업은 본 연구소의 인문한국사업 전임연구인력과 연구보조원이 학제 간 연구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지역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전임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현지조사 참여 기회 부여 및 국내외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연구보조원의 역량 강화, 본교 아프리카학부와 대학원 아프리카어문학과 및 국제지역대학원과 연계한 커리큘럼 개설 및 공동 학위수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본 연구소 자체의 연구 주체 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 요약**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프리카를 서구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토대로 영어권, 프랑스어권, 포르투갈어권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모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15~25%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구어들은 유럽인의 아프리카 진출 및 대륙의 식민지화와 함께 유입된 외국어로서,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 공용어로 지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어는 절대 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언어들의 소통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륙의 이러한 언어 상황을 반영하고, 본 사업의 대다수 참여 연구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어들(스와힐리어, 하우사어, 줄루어)의 구사 및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권역을 설정하였다: 1) 스와힐리-나일/북동아프로아시아 권역, 2) 하우사-베르베르/대서양콩고 권역, 3) 줄루-남부반투/코이산 권역.

이 권역들은 대륙을 주요 언어들에 따라 단순히 동서남북으로 나눈 결과가 아니라 아프리카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제 현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아프리카인의 생활 공간과 분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다. 물론 대륙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이들 세 권역의 언어, 문화적 양상과 정치, 경제적 양상이 정확히 중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요 언어, 문화의 분포, 학문적․실용적 중요성, 접근 가능성(현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권역에 속해 있는 개별 국가들을 우선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추후 예기치 못한 현지 상황에 따라 연구 대상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권역 구분을 통한 아프리카 연구는 서구에서도 시도된 바가 거의 없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상은 전통성과 근대성, 지역성과 세계성이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라는 공간 안팎의 사람들 간에 부단히 이루어진 이주와 교차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혼성 현상이 일어났다. 반투인의 대이주, 사하라 종․횡단 무역, 이슬람과 기독교의 유입과 확산, 유럽의 식민 지배 등은 이런 혼성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로 인해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인적․물적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 간의 경계가 지니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문화적 ‘원리와 힘’을 파악함으로써, 아프리카 문화의 원동력과 역동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는 아프리카 문화의 속성을 ‘과정’으로 전제하고, 10년간의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자 한다. 각 단어의 연구 주제어는 ‘경계와 지속’, ‘교차와 혼성’, ‘소멸 혹은 재구성’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주제어 설정은 연구의 단계별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화 현상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따라서 단계별 연구 주제는 아프리카 대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경계’(boundary)는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구조와 구별되는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고유성과 배타성을 지닌다. 민족성, 종교, 언어 등은 경계를 형성하는 근본적(primordial) 요인으로 꼽힌다. ‘지속’(continuity)은 구조와 구조가 상호 교차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가 소멸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의 지속은 경계가 지닌 속성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경계’와 ‘지속’이라는 개념은 아프리카 문화의 정체성(identity)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교차’(crossing)는 상이한 체계를 가진 구조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만남이다. ‘혼성’(hybridity)은 교차를 통해 특정 구조의 사회․문화적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다른 구조적 특징들과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와 혼성의 공통적 특성은 ‘탈 경계’에 있다. 인간의 문화사는 교차와 혼성의 역사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장기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구조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교차와 그에 따른 혼성 등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문화 현상이다.

‘소멸’(extinction)은 장기간의 교차와 혼성 과정을 통해 특정 구조의 요소들이 없어지는것을 말한다. ‘재구성’(restructuring)이란 소멸 대신 구조적 특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열 또는 재조직되는 것을 말한다.